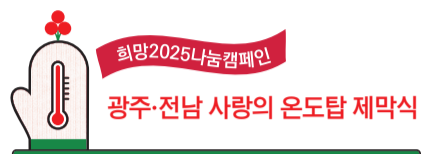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나눔캠페인 62일간 대장정



올 목표액 광주 51억·전남 113억
기관·단체·시민 나눔행렬 이어져
“살기좋은 광주·전남 위한 동참을”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희망 2025나눔캠페인'이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전남 사랑의열매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 사랑의열매는 2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무안 삼향읍 전남도청 광장에서 각각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본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캠페인 모금활동이 시작되는 매년 12월1일에 열렸으나, 올해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늦춘 2일 진행됐다. 매년 연말연시 17개 시도 지회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희망나눔캠페인'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올해 캠페인의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로 개인 기부의 가치를 강조하며, 나눔의 선순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영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대삼 사회서비스원 원장 등이 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5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사랑의 온도 올리기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캠페인 기간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표기한다. 올해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 목표액은 51억2000만원, 전남은 113억9000

만원으로 각 1%에 해당하는 5120만원과 1억1390만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된다. 광주에서는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온도탑이, 전남에서는 전남도청 광장(서부권)과 여수시청 현관(동부권)에 설치된 온도탑이 지역 주

민들의 나눔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와 전남 서부권에서 열린 제막식과 동시에 지역 기업·기관과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첫 기부자로 기아오토랜드,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등

참했으며, 지혜숲어린이집 원아들은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전남 서부권에서는 전남도의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남개발공사가 기부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3일 열리는 동부권 제막식에서는 ㈜스타테크, 여수광양항만공사, 그리고 정혜영 '여수언니 & 봄날엔' 대표가 나눔에 동참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단체장들은 이날 각 지역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해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 희망의 기운이 넘칠 수 있도록 연대와 나눔의 마음을 모아 달라"며 "광주 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지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올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소중함 마음이 모여 온도탑이 더욱 뜨겁게 끓어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회장들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에 도달해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2면에 계속**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무안국제공항, 매일 일본·대만 국제선 뜬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국제선을 운항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진에어는 이날 '데일리(Daily) 국제 정기선 취항식'을 갖고 매일 무안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국제선과 제주 노선을 운항기로 했다.

이날 취항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개항 17년만 첫 데일리 정기선 취항 제주·태국·말레이시아 등 정기편도

박병률 진에어 대표,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무안공항 첫 데일리 국제선 운항을 기념한 현장 이벤트로 탑승권 첫 구매자에게 무안-제주 왕복 항공권 증정행사도 진행됐다.

진에어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8시25분 출발하는 무안-일본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나리타, 오후 11시30분 대만

타이베이 국제노선을 운항한다. 또 매일 오후 1시35분 제주 국내노선도 운항한다.

데일리 노선이 운항되는 나리타 국제공항은 일본의 중추 공항으로 세계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대부분의 노선이 취항하고 있어 환승 시 미주, 유럽은 물론 남미 등 다양한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핵심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진에어, 무안군,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 정기노선 확대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전남도, 무안군, 항공사 합동으로 전남 주요 철도역, 대학,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홍보 캠페인도 펼쳤다.

진에어는 지난 5월 항공기 3대의 정지장을 무안공항에 등록하고 재산세 약 2억

원을 납부하는 등 무안 지역경제 발전과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인 정치장은 항공기를 등록한 장소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한다.

한편 오는 8일부터는 제주항공에서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주정기편이 운항되는 등 올해 동절기 총 9개국 18개 국제선이 운항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일보 연중 캠페인 바다를 살리자

2024 전남 해양고교 바다 환경 계기 교육

전남일보와 (사)전일엔컬스는 전남지역 해양 관련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바다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학생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 그리고 해양영토 주권과 우리나라 섬 등의 교육을 통해 전남 바다와 섬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미래세대 바다 지키기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바다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시 : 2024.12.4. (수) 11:00~

장소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문의 : 062-519-0730

주최 : 전남일보, (사)전일엔컬스

후원 : 전라남도,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